

“회암사 다시서는 날 나라 흥한다”



회암사지 북쪽 담장지를 시공하는 경기도박물관 연구원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회암사지에는 보물급 문화재로 선각왕사비(나용선사비)와 무학대사부도 등 10여점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회암사 다시 서는 날, 불법과 나라가 크게 흥하리라.” IMF 국난에 처한 우리 국민들에게 눈이 반짝 뜨이고 가슴 뭉클해지는 말이다. 일찍이 양주 회암사를 둘러 본 인도의 고승 지공스님은 원나라에서 귀국길에 오르는 나용선사에게 이 말을 전했다(신증동국여지승람·양주목 불우조). 이러한 인연으로 회암사는 고려를 거쳐 역불정복을 꾀했던 조선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국운과 불법을 결수 있었다. 바로 그 회암사가 현재 천보산 자락의 빈 절터 회암사지(사적 제128호)로 남아 있다. 한때 고려와 조선의 흥국사찰로 전국사찰의 총본산이었지만 근대에 와서 만신창이가 됐다. 2백62칸이라던 건물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무성한 잡초사이로 주춧돌만이 남았다. 옛 사지 한켠에는 사사로이 거대한 무덤이 들어섰고 울창한 소나무숲은 옛 자취를 뒤덮고 말았다. 누구하나 들보는 사람없어 옛 절터인지도 몰랐다. 안내관만이 외로이 회암사지의 옛 영화를 말해주고 있다. 과거 천보산 기슭에 남향해 앉은 회암사



지공화상



나용선사



무학대사

은 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 회암사지에 대한 포럼 및 캠페인 활동을 펼쳐 회암사지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복원불가피성을 역설할 방침이다. 국가전체가 간혹재정을 하고 있는 이때 착수된 발굴조사는 불자들보다도 경기도와 양주군민들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 발

견 고승 나용선사가 중창했다. 나용선사는 스승 지공화상이 ‘삼산양수간(三山兩水間)’에 머물도록 한 유언에 따라 회암사에 주석하면서 불사를 크게 일으켰다. 외국자본에 의해 국가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회암사의 시정인연은 도란한 것이다. 무엇보다 학계에서는 회암사가 나용선사 중창 당시의 가람규모와 배치를 알 수 있는 문헌자료와 실제 건물이 남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내용의 비문을 지은 바 있는 고려말의 유학자 박은 이백은 <천보산회암사수조기>에서 ‘절의 크기가 모두 2백62칸이며, 15척이나 되는 불상과 10척 크기의 관음상이 7구나 모셔져 있다’, ‘남향한 5칸짜리 보광전을 중심으로 동서 좌우로 여러 전각이 우뚝 솟아나고 여러 요사가 얽혀 있으며...절과 지붕들이 연달아 펼쳐지며 회암과 월랑들을 넘출처럼 두르고 높고 낮은 것이 아득하여 동서를 알지 못한다’, ‘평창하고 미려해서 동국에서 첫째다. 강호를 유람한 자들이 모두 일한기를 중국에서도 많이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과장이 아니다’고 했다.

석축·3회상부도·주춧돌 등 보존 '262칸 가람' 이색의 '천보산...'에 가람배치 자세히 설명 경기도박물관 2002년까지 6차례 발굴작업 양주군 복원추진위 구성 역사적 가치 조명 사적지 60% 사유지·인근 레미콘공장 '걸림돌'

는 3면이 숲으로 둘러싸여 아늑하고 전망이 탁 트여 시원한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거대한 레미콘공장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말 회암사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허허로운 필판과 산중에 주춧돌만으로 명맥을 유지해 오던 회암사지의 발굴복원이 양주군과 회천읍청년회 등의 손에 의해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IMF의 한파에 도 시러던 겨울날씨에도 아랑곳없이... 경기도박물관(관장 장경호)은 2002년까지 6차례 걸쳐 발굴작업을 실시한다. 현재 진행 중인 시굴조사를 토대로 본격적인 발굴이 원형조사와 병행해 올 3월부터 시작된다. 발굴이 완료되면 사유지를 매입, 연차적 복원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간다. 양주군

물어산만해도 7억3천여만원이 소요되는 대불사를 왜 하필 이때 시작하게 되었다. 그 해답은 우리 민족사를 보면 나온다. 신라나 백제의 경우 주변 세력들의 잦은 침략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당시 최대의 거찰 황룡사와 미륵사를 창건했다. 신라는 미륵신앙과 화엄신앙을 수용해 전통문화의 포용과 불교의 대중화로 삼국통일의 기틀을 다졌고, 백제는 귀족적인 미륵상생신앙을 하생신앙화해 미륵사의 대중적 전개를 이휘 백제중흥의 가치를 들었다. 우리 민족은 어러우면 어러우수록 대찰을 세워 정신적 귀처로 삼았으며, 이를 계기로 다시 일어섰다. 회암사 역시 원의 간섭으로 민족의 앞이 사라지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고려말에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번 역동적인 변화를 꿈꾸

던 고승 나용선사가 중창했다. 나용선사는 스승 지공화상이 ‘삼산양수간(三山兩水間)’에 머물도록 한 유언에 따라 회암사에 주석하면서 불사를 크게 일으켰다. 외국자본에 의해 국가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회암사의 시정인연은 도란한 것이다. 무엇보다 학계에서는 회암사가 나용선사 중창 당시의 가람규모와 배치를 알 수 있는 문헌자료와 실제 건물이 남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내용의 비문을 지은 바 있는 고려말의 유학자 박은 이백은 <천보산회암사수조기>에서 ‘절의 크기가 모두 2백62칸이며, 15척이나 되는 불상과 10척 크기의 관음상이 7구나 모셔져 있다’, ‘남향한 5칸짜리 보광전을 중심으로 동서 좌우로 여러 전각이 우뚝 솟아나고 여러 요사가 얽혀 있으며...절과 지붕들이 연달아 펼쳐지며 회암과 월랑들을 넘출처럼 두르고 높고 낮은 것이 아득하여 동서를 알지 못한다’, ‘평창하고 미려해서 동국에서 첫째다. 강호를 유람한 자들이 모두 일한기를 중국에서도 많이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과장이 아니다’고 했다. 현재 남아있는 석축과 당간지주, 주춧돌 등도 비교적 잘 보존돼 과거의 웅장한 모습을 찾기에 충분하다. 특히 복은선생의 문헌 기록과 90년 기초조사를 토대로 김홍식씨(문화재 전문위원)가 추정한 ‘회암사지 가람배치도’는 이번 발굴조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62칸 대가람이었던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회암리소재 회암사지 전경. 전면에 당간지주가 보인다.

그러나 회암사지 발굴 복원사업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 사적지로 지정돼 있는 회암사지내 토지 3만4천4백28㎡ 가운데 약 60%인 1만9천5백62㎡이 사유지로 돼 있다. 개인의 묘소도 사적지내에 자리하고 있다. 사적지내 개인사유지의 토지매입이 시급하다.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정부와 불교계가 적극 나서 사적지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장기복원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복원에 앞서 회암사지의 사야를 방해하는 레미콘 공장과 채석장을 철거하는 사적지 정비도 회암사지 존재를 알리는 데 한 몫을 할 것이다. 인도의 최대사찰 나란타사와 지형이 비슷하다고 하여 세워진 회암사지. 항화가 꺼진 이후 오랜 세월 거친 풍파를 이겨낸 석조물만이 오늘에 남아 그 옛날 식어버린 온기를 전하고 있다. 분명 회암사는 길지다. 가까이서 삼각산을 마주하였고, 남쪽에는 한강이 있으며 북쪽에는 장단이 있으니 ‘삼산양수’라는 말을 완히 볼 수 있다. ‘회암사를 일으킴엔 나라와 불법이 자연히 흥한다’는 말이 정면 사실이 아닐까.

글=윤기석 사진=고영배 기자

복원에 앞장서는 사람들. 장경호 경기도박물관 관장, 이상원 양주군의회의 부의장. "회암사 복원에 국민의 지 결집하자" "국민정신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야"

회암사 어떤 절이었나. 한국인이라면 황룡사나 미륵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반면 고려·조선의 최대사찰 회암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최근 KBS대하역사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황룡에서 돌아온 태조 이성계가 태종에게 옥새를 넘겨주고 무학대사의 지도아래 수행을 하던 곳으로 알려지면서 겨우 그 존재를 세상에 알리게 됐다. 회암사는 지공화상·나용선사·무학대사로 이어지는 걸출한 선승들이 주석하면서 명성을 드날렸다. 고려 충숙왕 15년(1328) 인도에서 들어온 지공화상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그 훨씬 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주목 불우조'에 1174년 금나라 사신을 여기서 맞이했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 태조 보우대왕이 13세에 회암사 관지선사에게 출가했다는 내력이 그의 비문에 적혀있다. 지공화상은 이곳의 형세가 천축(인도)의 나란타사와 같아 큰 절을 지을 만하다고 생각해 크게 재창건하고, 나용선사도 스승의 뜻에 따라 오늘날의 규모로 중창했던 것이다. 조선에 와서도 회암사는 태조 이성계의 각별한 관심으로